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1월 18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찬송가 621(신)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3번 (시편 4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온유한 주님의 음성 / 찬송가 529(신) 319(구)

기도 / 한정임 권사

성경 봉독 / 마가복음 13장 9-11절, 마태복음 13장 24-30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뽀지 말고 의지하라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찬송가 484(신) 533(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나 말은 본분은 3,4절 / 찬송가 595(신) 37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 지금은 사람과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자라게 두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알곡만 모인 상태가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입니다.
2.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꾀박과 위기 앞에서 미리 준비한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요청입니다.
3. 참된 알곡의 모습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내 입술을 지켜 주소서” 기도하며 담대함과 인내를 성령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언행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작아 보여서  
거부된 복음

막1:14-15

기대와 어긋난 복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죄 사함이나 미래의 천국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앞에서는 금세 실망했습니다. “때가 찼다”는 선언은 언젠가 올 희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작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대한 크기와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왕이라 불리지 않은 왕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권세로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의 끝처럼 보이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실패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는 시작부터 작아 보이며 외면당했습니다.

거자씨만 한 통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거자씨와 같았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분명한 변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작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권세, 증명하려 하지 않는 통치,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작아 보여 무시되었지만, 바로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최상천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여행 중이십니다.
5.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성경공부,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월 예배 위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은영(4)	박래석(11)	한정임(18)	한규철(25)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서둘러 정리하려 합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진짜인지, 어떤 말이 맞는지 빨리 가려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려는 열심을 멈추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발 한가운데서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제된 공동체가 아니라, 판단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인내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기 보호를 내려놓고 성령께 말과 침묵의 주도권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참된 알곡은 옳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분별의 칼이 아니라, “주님, 내 입술을 지켜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